

텍스트는 원형인가?

- 개념 정립을 위한 원형 이론적 토대를 찾아서 -

이성만(배재대)

1. 들어가기

필자는 이성만(1993ㄴ; 2002ㄱ)에서 이미 텍스트 개념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적인 접근 방식들과 관련해서 텍스트를 언어학적으로 정의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독화 텍스트(monological text)를 중심으로 근래에 활성화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지언어학, 특히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에 기대어 텍스트를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찾아 나선다. 먼저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가 설정한 텍스트다움(textuality)의 기준들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파티(1994)의 지시이론, 클라인과 폰 슈투터하임(1992)의 지시이동 개념, 뢰처(1987)의 주제 개념을 비판적으로 살피면서 원형 이론적인 텍스트 개념 정립을 위한 기본 자질들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한다. 이로부터 얻은 결과에 기초하여 원형 이론이 텍스트 개념 정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인 예시 분석을 통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원형 개념에 비견되는 ‘모형’, 곧 행위모형 개념도 도입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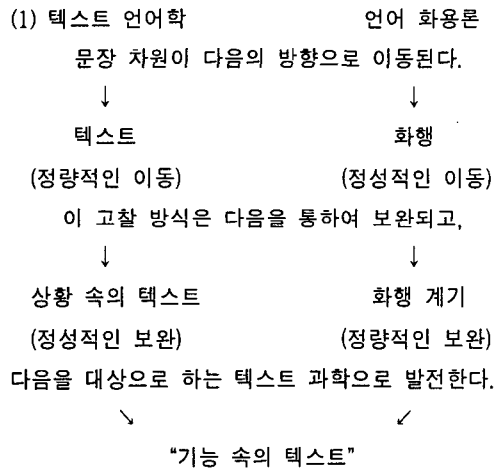
2. 이론적인 토대를 찾아서: 화용론과 인지이론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정의하려는 노력은 텍스트 언어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텍스트 언어학과 화용론의 관계는 밀접하다. 텍스트와 텍스트 생산 규칙에 대한 관심은 18세기까지는 수사학이 담당하였다. 1960년대에는 텍스트의 층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다. 텍스트 언어학과 언어 화용론은 처음에는 각방거처를 하였다.

1) 모형(Muster), 특히 행위모형(Handlungsmuster)과 그의 언어적 실현체와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엘리히(1984; 1986/96), 이성만(1993ㄱ) 참조.

텍스트 언어학은 언어학적 분석이 문장 경계 이상으로 확장되면서 나타났다. 우선은 조음 관계, 시제 사용 같은 텍스트 구성의 언어 규칙들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텍스트 단위, 텍스트 응집성, 텍스트 유형 등에 대한 질문들이 관심을 끌게 되면서 텍스트의 화용론적 기능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텍스트의 화용론적 기능을 통해서만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문장 차원의 정량적인 이동이었던 것이 점차 정성적인 이동, 곧 텍스트를 커뮤니케이션 상황 속의 언어적 단위로 가정하는 이동이 일어나면서²⁾, 결국 텍스트를 언어학의 가능한 기본 범주로 받아들이는 언어학의 한 방향이 머리를 내밀었다.

언어 화용론에서도 문장 차원이 극복되었는데, 문장이 아니라 화행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정성적인 이동이었다. 언어 화용론에서는 문장과 일치하는 화행이 오히려 예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연구의 중심을 화행 계기(speech act sequence)와 의사소통 기능과 전략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텍스트 언어학의 초기에는 정량적인 이동이 뒤따랐다. 이런 식으로 초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겪던 텍스트 언어학과 언어 화용론이 점진적으로 수렴되면서 관심의 초



2) 예컨대 지시이론에서, 특히 텍스트의 직시구조(Deiktika)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사론적 장치뿐 아니라 기능 속의 텍스트를 함께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은 문장 차원의 양적인(정량적인) 극복이라기보다는 질적인(정성적인) 극복으로 파악될 수 있다.

점이 바뀌게 되었다.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텍스트의 내부 구조가 전면에 있었다면, 언어 화용론에서는 언어행위의 사회적인 책임이 전면에 있었다. 텍스트 언어학과 언어 화용론의 관계를 슐리벤-랑에(1975, 111)에 기대어 정리하면 (1)과 같다.

화용론적 텍스트 언어학은 구체적인 사회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가 갖는 기능이 텍스트 분석의 토대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더 이상 자율적인 체계로 보지 않게 되었다.³⁾

1980년대부터는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를 시작으로 하여 텍스트를 인지과정의 결과로 보는 접근법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⁴⁾ 이미 하르트만(1971)이 텍스트를

- 3) 더 자세한 논의는 하이네만과 피베거(1991, 53f.), 이성만(1993, 2001) 참조.
- 4)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는 텍스트의 언어구조를 이해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지구조로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텍스트 언어학에서 '인지적 전환(cognitive turn)'을 마련한 초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들은 먼저 텍스트 생산 과정에 눈을 돌린다. 이 과정은 '계획', '관념', '발전'의 단계에서 아직 자연언어의 표현들과 연관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선형적(linear)으로 작성된 언어 결과물은 인지 맥락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인과 관계, 시간 관계, 공지사 관계는 텍스트 자체에서 언어 수단에 의해 암시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로부터 인지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텍스트다움을 전체적으로 언어 구조의 맥락이 아니라 심층적인 층위에서 인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텍스트의 토대가 되는 이런 인지적인 전체 정세를 그들은 '텍스트 세계'라는 개념으로 나타낸다. 이것은 인지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텍스트의 '정신 모델(mental model)' 개념과 다를 바 아니다. 보그랑드와 드레슬러는 기본 개념들을 심리학의 용어들을 차용하고 있는데, '개념(concept)'(특정 '지식 정세'의 의미)와 '관계(relation)' 개념(텍스트를 환기시키는 'concept'들간의 정세에 기초함)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텍스트 세계'는 개념들과 이들 사이를 조정하는 '관계들'의 정세에 기초한다. 그들은 이 인지 정세의 내부 관계를 제약하는 원칙을 '융집성'이라고 본다. 이제 언어적 텍스트와 정신적 텍스트 세계를 연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언어 의미론의 기본 개념들을 끌어들인다. '의미'(언어 표현의 의미 잠재성)와 '의의'(실체 의미)의 구분이 그것이다. 의의는 "실제로 한 텍스트 내의 표현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전체 의의'는 "텍스트의 표현들에 의해 활성화되는 지식 내의 의의 연속체"이다. 이런 의의 융집은 개념들과 이 개념들간의 관계를 포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텍스트 세계'라는 개념은 어느 한 텍스트를 받아들일 계기가 있어서 언어 표현들의 의미론을 거쳐 조정된 의의 융집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의의 융집의 언어적인 제약성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정신 모델'에서는 더 이상 파악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그랑드와 드레슬러의 텍스트 융집성 이해는 독창성을 얻게 될 것이다.

“독창적인 언어기호”로 간주함으로써 텍스트를 산물과 과정으로 기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산물로서의 텍스트는 텍스트 수용자에게는 구조와 내용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텍스트 생산자에게는 발화된 것에서 드러나는 복합적인 인지적 과정의 산물로 보인다. 텍스트 수용자측의 인지적 과정도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것은 텍스트 수용자가 산물인 텍스트와 대결하게 될 때 그러하다. 이러한 인지적 과정은 “죽은 문자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다시 말해서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성만 2001, 91)이다. 그러므로 텍스트다음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응집성(coherence, 심층결속성)도 처음부터 텍스트에 내재하는 특성이 아니고, 텍스트 수용자가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텍스트는 인지 모형에 의존한 기능, 의미, 구조를 보여주는 산물이자 수단, 곧 “생산자의 의도를 충족시키는 도구”(이성만 2001, 91)이다. 이런 의미에서 텍스트 언어학자들은 말이나 글의 구조, 내용, 기능을 밝히는 작업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에 이르는 인지 과정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응집성을 제약하는 의의 연속체의 또 다른 구분은 파터(1994, 109ff.)에서 발견된다. 그는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 116f.)에서는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은 ‘지시’ 개념을 집중시킨다. 그는 기존의 개념 규정과는 달리 지시 개념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국면을 보완한다. 첫째, ‘지시’는 고립된 개별 언어표현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시 관계’는 “텍스트 맥락을 통할 때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지시’는 “의미론적·인지적 현상”이다. 여기서 그는 자켄도프의 인지의미론을 끌어들인다. 자켄도프는 언어표현으로 실제 세계나 가능 세계의 영역에 있는 언어 외적인 것이 지시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지 과정에서 ‘투사된 세계’에 있는 실체가 지시된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추상명사와 같은 지시 행위의 일상적인 기술상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지시 행위를 위한 특정한 언어표현들(예, 명사구)이 있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구들(형용사구, 동사구, 문장 전체 등)도 ‘지시행위’에 사용된다. 이렇게 하여 화행론에서 ‘명제행위’의 틀에서 설정한 ‘지시’와 ‘술부’의 이분법도 진부한 것이다. 이런 가정을 토대로 하여 파터는 나름의 ‘지시유형학’에서 사건지시, 시간지시, 장소지시, 대상지시를 구분하고 인지적으로 텍스트에 상응하는 지시 관계 망을 기술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파터(1994, 137)는 지시구조를 이용하여 텍스트 응집성의 핵심 구성성분을 파악하고 기술할 수 있다고 본다.

인지언어학, 특히 원형 이론은 개념의 전형성(typicality), 곧 고전적 범주화 대신 원형 범주화를 제안하는데, 사람은 어떤 개념을 ‘인지 모형’에 기대어 인지한다는 생각이다.⁵⁾ 레이콕은 ‘이상적인 인지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우리는 이 모형에 기대어 지식을 조직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인 인지모형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범주구조와 원형효과는 그러한 조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원형효과는 여러 유형의 이상적인 인지 모형에 의해서 생기는 표면 현상이다. 이 효과의 일부는 단순하고 일부는 복잡하지만 단일 원형에 집중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bachelor(독신남성)라는 범주는 [인간], [미혼], [성인], [남성]의 의미모형을 갖는데, 일부일처제 결혼제도와 결혼 가능한 연령에 대한 이상적인 인지 모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곧 결혼이라는 문화적인 제도에 근거하여 미혼 동거 남자, 추기경, 동성애자 등은 bachelor가 될 수 없다. 그리고 bachelor는 문화적인 제도에 따라 결혼 가능한 연령을 이상화하는데, 이 연령이 지난 사람은 결혼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만이 bachelor로 불리게 된다. 이처럼 인지 모형은 문화 의존적인 성격이 있다. 문화인류학에서는 개별 문화권에서 공유된 인지 모형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언어와 언어간에 개념적 의미가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내포의미까지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볼 때, 개념의 이해는 개별 어휘항목의 의미 분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인지모형에 관한 이해를 전제한 것이다.

레이콕의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모든 범주는 그 구성원들의 추상적이며 객관적인 필요충분 조건의 자질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성분분석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원형 이론의 기본 골격을 정리하면, 첫째, 하나의 범주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형적이고 훌륭한 원형(prototype)이라는 사례와 그 주변 사례들로 구성되는 원형효과가 나타난다. 둘째, 한 범주의 구성원들이 필요충분 조건의 자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상호간의 유사성과 연관성에 의해 형성되는 복잡한 그물 망과 같은 가족 유사성의 성질이 있다. 셋째, 범주와 인접 범주의 경계는 연속체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 사이에 위치한 언어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

5)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는 주로 임지룡(1997), 임지룡 외 역(1997), 조명원 외 역(1998) 등에 기대었다.

서 원형은 그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들의 추상적 집합체로 규정될 수 있다.

텍스트 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인 기반으로서 레이콕의 인지언어학, 특히 원형 이론의 핵심 생각인 '(언어) 범주는 원형적 구조를 갖는다'는 관점을 이용하겠다. 원형 이론의 이런 관점을 요약하면 (2)와 같다.

- (2) ㄱ. 범주는 개체/부류의 집합을 포함한다.
- ㄴ. 각 개체/각 부류가 다 그 범주의 '좋은 범례'인 것은 아니다.
- ㄷ. 범주의 가장 좋은, 가장 전형적인 대표성은 원형이다. 그것이 중심에 있다.
- ㄹ. 덜 좋은 대표성은 변두리에 있다.
- ㅁ. 범주들간의 경계는 불명확하다.
- ㅂ. 한 범주에의 소속 관계는 정도의 질문이다. 즉, 질문은 'x는 범주에 속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x는 범주에 대해 얼마나 대표적인가?'의 형식을 취한다.
- ㅅ. 한 범주의 원형적인 대표성들은 자질 묶음을 보인다. 이들은 범주의 다른 성분들과 공통점을 가지며, 되도록 적은 성분들이 다른 범주들과 공통점을 가진다. 일치하는 자질뿐 아니라 상이한 자질들에 근거하여 한 범주의 대표성들간의 '가족 유사성'이 성립한다.
- ㅇ. 범주화할 때 최적의 환원 층위가 있는데 기본 층위(basic level)⁶⁾가 그것이다. 기본 층위의 범주들은 '정보 다발(information-rich bundles)' 또는 '속성 무리(clusters of attributes)'를 이룬다. 이 두 다발들은 지각적이고

6) 로쉬의 가설에 따르면, 하나의 범주는 계층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물을 지각하고 개념화하는 층위가 '기본층위'에 해당한다. 로쉬는 심리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층위가 계층적 분류구조의 중간에 있음을 찾아내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기본층위는 상위층위나 하위층위에 비해 기능적, 인지적, 언어적으로 우월한 특성을 갖는다.

상위층위:	식물	동물
기본층위:	나무	새
하위층위:	소나무	참새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임지룡 외 역(1998) 참조.

가능적이다. 그래서 신문의 「춘평」이나 「르포」 같은 텍스트 종류는 ‘텍스트’보다 정보와 자질이 더 풍부하다. 반대로, 상위 층위의 범주들은 기저 층위의 범주들보다 정보의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다.

아래에서는 우선 텍스트의 원형 자질을 독화 텍스트의 예에서 찾아내는 작업을 하여 원형 이론이 텍스트 개념 정립의 또 다른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3. 텍스트의 원형 자질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 3ff., 35ff.)는 텍스트는 먼저 텍스트다움의 7가지 기준을 충족시킬 때 나타난다고 본다. 뒤에 가서는 이런 대표적인 기준들, 곧 텍스트 종류들과 다른 종류의 대표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잣대로 경계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바로 이런 시각은 텍스트에도 적용된다. 파터(1994, 24)는 텍스트는 다른 용어들처럼 한 방안에서만 정의될 수도 있겠지만, 학문 이론적인 맥락이 고려될 수 있을 때 정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텍스트를 정의할 때의 어려움은 ‘텍스트’라는 현상 자체뿐 아니라 사용된 방안들의 다양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3.1. 응결성과 응집성

응결성(cohesion, 표층결속성) 자질은 텍스트의 구성성분과 텍스트 표층과의 관계를 뜻한다. 그러나 (3ㄱ)에서 보듯이 응결성 자질은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필수 자질은 아니다. (3ㄴ)처럼 응결성을 보여주는 하지만 텍스트가 아닌 구성체도 있기 때문이다.

(3) ㄱ. LANGSAM

SPIELENDEN KINDER(보그랑드와 드레슬러 1981, 1)

- ㄴ. Es gibt niemanden, den ihr Gesang nicht fortreißt. Unsere Sängerin heißt Josefibne. Gesang ist ein Wort mit fünf Buchstaben. Sängerinnen machen viele Worte.(파터 1994,39)

응결성은 그런 점에서 원형 자질(prototypical feature), 곧 텍스트의 중요 자질이기는 하지만 필수 자질은 아니다.⁷⁾ (37)은 원형 텍스트(prototypical text)에 속한다(누스바우머 1991, 132). 그런데 텍스트로서 (37)은 어떤 텍스트 종류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잉여적일 수 있다.

이처럼 응결성이 문법적 자질이라면, 응집성 자질은 주제 구성에 결정적인 텍스트 구성성분들간의 논리·의미적 관계 자질이다. 파터는 이런 구성성분들을 ‘중요 자질’로 보면서, ‘주제는 텍스트에서의 응집 관계를 결정한다’고 하고, 텍스트다음의 핵심 기준이라고 본다. 보그랑드와 드레슬러가 주장한 다른 모든 기준들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응집성이 있으면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배적’, ‘핵심적’이라는 말은 그 자질이 원형적인 텍스트 자질 또는 적어도 하나의 원형적인 텍스트 자질이라는 뜻이다. 응집성과 응결성은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 118)에 따르면 ‘텍스트다음의 가장 명시적인 기준’이다.⁸⁾

파터(1994)가 응집성을 강조한 것은 화용론적 방안에 대해 그의 회의적인 입장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클라인과 폰 슈투터하임의 지시 이동(referential movement) 개념⁹⁾을 끌어들인다. 여기에서도 ‘지시 관계’는 텍스트

- 7) ‘응집성’ 자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스바우머(1991, 131f.), 이성만(20027) 참조.
- 8) 텍스트다음의 핵심 기준에 속하는 ‘응결성’과 ‘응집성’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드레슬러(1972)는 이 두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였고, 할리데이와 하산(1976)은 ‘응결성(cohesion)’이란 용어만 사용하였는데, 대치, 생략, 공지시 같은 텍스트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공지시는 대명사적 대치뿐 아니라 반복이나 생략 표현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용어의 혼합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 파터(1994) 등은 응결성과 응집성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한다. 응결성은 텍스트 단위들간의 ‘문법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응집성은 수용자의 인지 과정에서 텍스트 사슬을 이해 가공하면서 환기되는 인지적 상관 개념들 사이에서 산출될 수 있는 순수 인지적인 의의 결속 망과 관련된 관계로 파악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응집성이 응결 관계를 지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응결성’은 텍스트다음의 필수 기준이 아니며 가능한 응집 관계의 표지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응집성은 인지적 층위에서 텍스트다음의 핵심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인지의 차원, 곧 텍스트다음의 인지적 차원을 텍스트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은 웨르너(1994), 이성만(2001, 20027)에서도 찾을 수 있다.
- 9) 클라인과 폰 슈투터하임(1992)에 기대면, 개별 발화는 모두 장소, 공간, 행위, 인물 등, 곧 다양한 의미론적 영역들, 곧 지시 영역들에 관한 정보들의 조직을 유지한다. 이어지는 발화는 이 정보들의 일부를 포함하면서 다른 정보들을 새로 끌어들인다. 이런 식으로 발화에서 발화로 정보가 전개되는 현상을 ‘지시이동’으로 이해한다.

가공의 인지적 층위에 자리잡고 있다.¹⁰⁾ 이 개념에 따르면, 텍스트가 어떤 질문(들)에 대답을 주느냐고 질문함으로써 텍스트 주제와 텍스트 구조를 규정하고자 한다. 텍스트는 그 전체에 걸쳐서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질문, 곧 텍스트 질문(Quaestio)에 대답을 주는 데 이용된다. 개별 발화들은 이 질문(들)의 대답에 기여하며, 텍스트 구성의 토대가 되는 제약도 질문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그들은 전체 텍스트에 대한 질문과 개별 발화에 대한 질문을 구분한다. 예컨대 찰떡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질문은 한 문장으로 대답될 수 있다. 그 대답은 순차적으로 특정 방식으로 연결된 다수의 발화문들로 나뉘질 수 있다. 클라인과 슈투터하임은 바로 이런 텍스트 질문과 화자의 의사소통 목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체 생각(Gesamtvorstellung)'이 텍스트의 토대를 이룬다는 입장이다. 이 전체 생각은 주제뿐 아니라 텍스트의 전체 구조를 결정지며, 때로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텍스트의 개별 발화에도 반영된다는 생각이다.

(4) ㄱ. (누가 왔지?) 예지가 왔어.

ㄴ. ([너는] 누구에게 열쇠를 주었니?) [나는 그 열쇠를] 경비 아저씨에게 주었어.

ㄷ. (저 버스는 어디로 가는 거지?) [저 버스는] 시청으로 가.

선행 질문에 근거하면, (4ㄱ)은 주어가 초점이고, (4ㄴ)은 간접 목적어가, (4ㄷ)은 방향 부사어가 초점이다. 나머지는 주제에 해당한다. 텍스트 첫 머리에서는 문장 전체가 주제이거나 초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클라인과 폰 슈투터하임은 텍스트에 나오는 개개의 발화가 모두 텍스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들에 따르면, 이는 핵심구조의 발화들에만 적용되는데, 텍스트의 주변구조(배경 underground)에 속하는 발화들은 이 핵심구조(전경 foreground)의 사이에 첨가되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전경과 배경은 「설화」의 전체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전경 발화들이 대개 완료상을 보인다면, 배경 발화는 미완료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설화」에서 전경과 배경의 구분은 의사소통적 중요도의 기준과 무관하다. 「설화」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사실이 배경 발화에서 전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텍스트 유형들에서도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논증,

10) 물론 '지시'는 의미의 기술적인(descriptive) 측면하고만 관련이 있다. 이것으로는 언어 표현의 정표적인(expressive) 의미나 사회적인(social) 의미의 국면은 배제되는 것이다.

판결, 서술과 같이 시간적인 구조화가 없는 텍스트들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시간적인 구조화가 된 것이기는 하지만 개개의 구성성분들이 단일 사건들이 아니라, 전체 사건, 상태, 가능한 사건들인 텍스트도 있다. 이런 경우에 텍스트는 하나의 핵심 구조가 있어서 텍스트 구조의 뼈대가 서술되고 다양한 종류의 '주변구조들'을 통하여 확장될 수 있다.

3.2. 의도성과 텍스트 기능

의도성(intentionality)은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 8f., 118ff.)에게는 응결성과 응집성에 이어서 텍스트다움을 결정하는 세 번째 중심 자질이다. “인지 가능한 의사소통 기능”은 브링커(1992, 17, 56f.)에게는 핵심 기준이다. 보그랑드와 드레슬러에 의하면, 언어 산출물은 커뮤니케이션에 장애를 받을 정도로 텍스트의 기준들이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비 텍스트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인지 가능한 응결성, 응집성, 상황 관련성 등이 완전히 빠져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텍스트 사용자는 의사소통의 목적성이 성립하는 한에서는 응결성이나 응집성의 장애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 수 있다. 텍스트의 ‘의사소통 기능’(브링커), ‘목적성’(보그랑드와 드레슬러) 또는 ‘텍스트 질문’(클라인과 폰 슈투터하임)을 제외하면 텍스트의 또 다른 자질이 중요하게 된다.

이처럼 보그랑드와 드레슬러가 제시한 자질들이 예외 없이 모든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요리법」의 텍스트 질문은 신문의 「논평」이나 「사설」 같은 텍스트 종류에서 제기되는 텍스트 질문과는 다르다. 파터(1994, 54)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응집성이 없는 데도 수용될 수 있는 텍스트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쿠르트 슈비터(Kurt Schwitter)의 「Cigarren」에서 보듯이 무의미한 것에서도 의사소통 기능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 기능의 기준에 따르면 ‘금연!’ 같은 한 단어 발화와 ‘이곳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같은 한 문장 발화도 특정한 상황 조건에서는 텍스트로서 특정한 의미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예에서는 응결성과 응집성 그 어느 것도 없다. 그러면 다른 자질이 필요하다. 언어놀이공간이 그것이다.

3.3. 상황성과 언어놀이공간

문어 텍스트에서는 어떤 상황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텍스트의 산출 상황과 수용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엘리히(1984)는 ‘텍스트가 상황과 무관하게도 존재할 수 있음’에 주목했다. 텍스트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어 커뮤니케이션은 대개 두 가지 기본적으로 상이한 의사소통 상황(쓰기 상황과 읽기 상황(낭독된 텍스트는 듣기에서))에서 일어난다. 엘리히(1984)도 “팽창된 발화 상황(zerdehnte Sprechsituation)”에 관해 말하고 있다: “팽창된 발화 상황에서는 텍스트들이 텍스트 담지자들, 예컨대 책, 거리 표지판, 동전, 메달, 지폐, 묘비, 기념비, 메모, 신문, 벽보광고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텍스트 담지자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 유형들이다.

상황성, 곧 “텍스트가 나타나는 상황”(보그랑드와 드레슬러 1981,12)은 기능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컨대 ‘동학사→→→’는 방향을 가리키는 교통 표지판으로서, 아니면 소설이나 여행 안내서의 제목 등으로서 아주 다양한 텍스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사용 상황은 다른 텍스트 자질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텍스트 기능을 명료하게 해준다. 다시 말해서 브링커(1992,17)의 정의는 다음처럼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언어 기호 연속체가 전체로서 인지 가능한 기능을 신호해준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연!’이나 ‘이곳은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같은 표현들도 물론 농담조로 관습적인 상황 이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텍스트 기능을 얻게 된다. 즉, 텍스트 기능이 텍스트 자체를 통하여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거나 관습화된 언어 형태가 어긋나게 사용되면 사용 상황을 통하여 기능이 해석될 수 있다(파터 1994, 66도 참조). 전형적인 기능을 가진 텍스트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텍스트 기능이 명확하지 않게 만들어졌고 사용 상황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예컨대 문학 텍스트에서는 주제가 지배적이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자질들의 화합이 중요하다.

3.4. 텍스트 주제와 텍스트 기능

또 다른 중심 자질은 텍스트가 주제를 갖는 것이다.¹¹⁾ 이 주제는 상황 속에서의 텍스트 기능에서 수용자의 수용 능력을 통하여 텍스트의 응집성 자질¹²⁾에 근거하

여 언어지는 것이다. 이때 주제는 텍스트 기능의 지배를 받는다(누스바우머 1991, 152, 뢰취 1987, 19ff.). 뢰취(1987, 30ff., 34)에게는 주제가 텍스트 기능이 아니라 행위 내용, 곧 재료의 국면이다. 주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없어져야 할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뢰취(1987, 111ff.)가 주제의 일상 언어적 개념에 주목하면서 원형적인 ‘주제 중심 텍스트’와 ‘주제가 부차적인 텍스트’를 구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제는 텍스트의 핵심 자질이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이나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건에 관련된, 외부 세계에 초점을 맞춘 텍스트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주제를 갖지만, 단순한 관계 형성에 이용되는 텍스트들처럼 자기 표현에 이용되는 텍스트들은 주제를 가질 필요가 없다.¹³⁾

뢰취(1987, 115)는 순수 내용 중심 텍스트와 오로지 관계 중심의, 표현 중심의, 형식 중심의 기능이 있는 텍스트 사이에는 다수의 중간 단계와 조합 가능성들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도 엄격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형적인 범주들에 특징적인 과도기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뢰취는 ‘등급’을 설정한다. 즉, 주제가 없는 텍스트 유형과 주제 중심적인 텍스트 유형 사이에는 여러 가지 중간 단계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호소 텍스트에서는 어느 것이 텍스트의 주제인지를 결정하기가 간단하지 않는 텍스트 종류도 있다. 「기도」, 「정치선전」 같은 호소 텍스트(Appelltext)의 원형은 부탁, 지시, 명령이다. 그런 텍스트는 그 기능 면에서 순수 호소를 담고 있을 수 없다. 호소 텍스트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혹해야 하므로 이 호소 행위도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 종류에서는 주제가 텍스트 기능에 비해 부차적이다. 텍스트의 주제 지향성의 등급이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서 의성어를 시에 접목시킨 예른스트 안들(Ernst Jandl)의 『Schützengraben』을 들 수 있다(뢰취 1987, 122).

-
- 11) 텍스트에서 주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모든 텍스트 언어학 논저에서 발견되는데, 본고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누스바우머(1991, 151), 뢰취(1987, 128), 이성만(2001) 참조.
- 12) 주제가 텍스트 전체와 관련된 개념이라면, 웅집성은 ‘상향식(bottom up)’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 13) 「안부카드」 같은 정서적 기능이나 『Kinderabzählreim』(뢰취(1987, 114ff.): Enige wenige tumpelt, tifel tafel nummeni, Echebrot in der Not, eins zwei drei, und du bist frei)처럼 시적 기능이 있는 텍스트가 그러하다.

(5) schtzngrmm
 schtzngrmm
 t-t-t-t
 t-t-t-t
 grammmmm
 t-t-t-t
 s-----c-----h
 tzngrmm
 ...

여기서는 참호라는 의미의 합성어 ‘Schützengraben’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들이 유추적으로 모방되고 있는데, ‘호통치는 소리’ ‘씻 소리’ ‘쿵하는 소리’ ‘속사총 소리’의 문자화가 그런 예들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텍스트 자질들의 결속 관계를 정리하면, 텍스트는 대개 복합적인 단위로서 사태(주제, 응집성)와 관련된 과제들을 사회에서 해결하기 위하여(의도성/텍스트 기능) 상황 속에서(상황성/언어놀이공간) 사용된다. 응결성은 지국적인 결속 망에 기여한다. 이런 핵심 자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기능은 텍스트 자료(텍스트의 표층, 외형 등)에 근거하여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을 해석에 끌어들여야 한다. 텍스트 기능이 문학 텍스트에서와 같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주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맥락에서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춰서 텍스트를 정의하면, 텍스트는 적어도 다음의 5가지 원형 자질들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¹⁴⁾

14) 이성만(2002-1)은 텍스트의 구성과 경계를 중심으로 텍스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의도의 지향성, 응집성과 종결성 등의 토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텍스트를 이렇게 정의한다: ① 텍스트는 주제와/나 기능 지향적이어야 한다. ② 텍스트는 응집성이 있어야 한다. ③ 텍스트는 내용과 기능 면에서 계기적·계층적으로 구성된 발화 복합체로서 종결된 단위를 이루어야 한다. 이른바 가상공간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생산되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는 기존의 텍스트와는 달리 비선형적(non-linear), 전방위적(holistic), 수용자에 의한 종결 선택적 자질을 갖는 융합(fusion)의 특징을 보이지만(반면에 일반 텍스트의 종결성은 생산자에 의해 선택된다), 종이 위의 정보융합 체계에서 링크형식의 정보융합 체계로 전환되어 나타났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기본 성격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이성만 2002-1).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논의로는 김성도(2000)와 박여성(2001) 참

- (6) ㄱ. 텍스트는 종결된 의사소통 단위이다.
 ㄴ. 텍스트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이 필요하다.
 ㄷ. 텍스트는 현실(또는 텍스트 자체)과 관련을 맺고 있다.
 ㄹ. 텍스트는 일정한 의사소통 기능을 갖는다.
 ㅁ. 텍스트는 응집성을 갖춘 전체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결국 텍스트의 개념 정립을 위한 토대로서 상황성, 텍스트 기능, 주제, 응집성의 자질이 중요하며, 추가로 종결성이 가세한다. 한 단어나 한 문장 텍스트에서는 응결성, 응집성, 텍스트 기능은 없지만 주제가 있는 경우는 있다. 이런 종류의 텍스트 주변 현상들은 기능을 명시해주는 상황과 관련을 맺고 있다.

4. 예시분석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텍스트는 xxx에 전형적이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형적 텍스트’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엘리히(1986/96)에 기대면, 이것은 모형(Muster), 곧 복합적 행위모형(Handlungsmuster)과 관련이 있다.¹⁵⁾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다양한 종류의 신문 텍스트들이 같은 상황에서 사용된다면 그의 의사소통 기능이 상호 주관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 그래서 브링커(1992, 17)는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해서 ‘인지 가능한 기능’에 관해 말한다.

이미 폰 데어 라게-윌러(1995)는 신문의 「부음」을 텍스트 유형학의 시각에서 연구하면서 텍스트 모형, 곧 텍스트 종류를 “다양한 정도로 변형과 창조를 열어주는 놀이 공간”을 허용하는 원형으로 본다. 텍스트 종류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독특한, 사회적으로 굳어진, 구조적인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텍

조.

- 15) 엘리히(1986/96)는 ‘모형(Muster)’을 언어행위의 조직 형태로 본다. 곧 모형은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세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사회적인 구조이다. 그런 점에서 모형은 사회적인 관계들을 언어적 형태로 모사한 것이다. 인간의 행위만이 일반적인 행위구조를 실현하는데, 이 일반적인 행위구조의 본질적인 부분영역이 언어적 행위 형태라는 것이다. 언어 행위의 많은 모형들이 개개의 사회적인 조직들을 덮고 있다. 그 결과로 그 모형들의 보편성의 외양이 나타나는 것이다.

스트 종류의 일반적인 기능은 텍스트 종류에서 그리고 텍스트 종류로 사건, 사태 그리고 생활 세계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들이 다양한 의의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견고한 형태로 주체화되고 극복되고 전달되고 전승되는 것에 있다.

텍스트 모형은 비언어적인 행위모형과 언어적 텍스트 종류가 협력하여 기술될 수 있다. 행위모형의 본질은 ① 문제 상황과 문제 해결의 종류가 있는 독특한 사회적 의의, ② 독특한 사회적 전제 조건(통로, 텍스트 담지자의 구분으로서 독특한 매체, 행위 영역(예, 제도)), ③ 행위 참여자와 관련된 전제 조건(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텍스트 기능과 상황성)에 있다. 행위 국면들의 이러한 협력은 원형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텍스트 성격으로 언어화된다(행위 수단으로서의 텍스트 종류). 행위 모형들의 계층구조는 문제 해결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제 계층구조가 이 문제의 해결방식으로 나타난다. 계기 모형(Sequenzmuster)도 자주 있다. 한 텍스트 모형의 텍스트들은 평균적인 길이와 독특한 재료상의 텍스트 특성, 규약적인 구성 모형을 갖는다.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텍스트 모형은 예컨대 광고에서 후각적, 미각적, 음향적 요소들이 첨가될 수 있다. 텍스트 모형에 따라서는 영상(그림), 색채, 그래픽 등의 사용이 핵심적이거나 부수적일 수 있다. 발화 형태들, 예컨대 텍스트 모형에 따라 독특하게 변형되는 응결성과 응집성의 형태들은 일부는 텍스트 모형 특유의 작성 모형, 예컨대 고정된 양식, 용어, 언어, 통사론 같은 작성 모형에 의해 결정되며, 일부는 행위 영역, 채널(문자, 그림(영상) 등을 위해서는 시청각적 루트) 그리고 특수한 매체의 제약을 받는다.

텍스트 모형을 기술하면 원형적인 사례들, 곧 명확하게 원형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들이 기술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동화의 원형적인 시작 형태, 곧 'Es war einmal...[옛날 옛날에 ...]' 같은 작성 형태를 발견하게 되는데, 전체 동화의 1/3정도만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신문 텍스트 종류로서 「부음」에서도 원형적인 작성 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¹⁶⁾ 독일어권에서는 사망자가 주인공이 되는 'xxx ist gestorben am yyy'의 모형을, 한국에서는 사망자가 주인공이 아닌 'xxx의 장모상/부친상...'의 모형을 사용하는데, 2/3정도가 이런 모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적이라고 보는 텍스트 종류 자질들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구조를 가진 텍스트들의 부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

16) 이성만(2000), 폰 데어 라게-윌러(1995) 참조.

현 형태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¹⁷⁾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 종류 「졸업축사」는 거의 모든 기술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원형적인 사례에 속하는데, 주변 자질들도 드물지 않게 사용된다.

(7) 예시 텍스트 (인용: <http://www.yn.or.kr/hoibo/20020305/met1.html>)

이의근동창회장 졸업축사



존경하는 이상천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새 봄과 더불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랑스런 졸업생 여러분!

먼저 영예로운 학위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14만 동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졸업이 있기까지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과 뜨거운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천마동산에서 젊음을 불태우며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더 큰 성취와 벅찬 희망을 안고 새 출발을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경영」의 저자이자 미래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오늘날 교육은 가장 진보된 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발전은 곧 대학의 발전이요, 대학의 발전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동안 연마해 온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성공을 일궈내는 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큰 동량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천마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인 천마정신이야말로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큰 자

17) 예술 텍스트에서도 (장르, 시대, 저자 등을 위한) 원형이 있으며, 양식들도 다소 원형적으로 구성되거나 채워질 수 있다. 다만 변형의 전형성 정도는 그때마다 서로 다르다.

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 저는 학위수여식을 가지면서 또 다른 감회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영남대학교가 지방 최고의 사학명문으로서 「i-캠퍼스」와 「연합전공제」 도입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총동창회도 지역동창회 창립과 함께 해외동창회를 확대하는 등 모든 천마인들의 긍지와 자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교의 위상과 동창회의 발전은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가꾸어 낸 결과이며, 미래의 모습 또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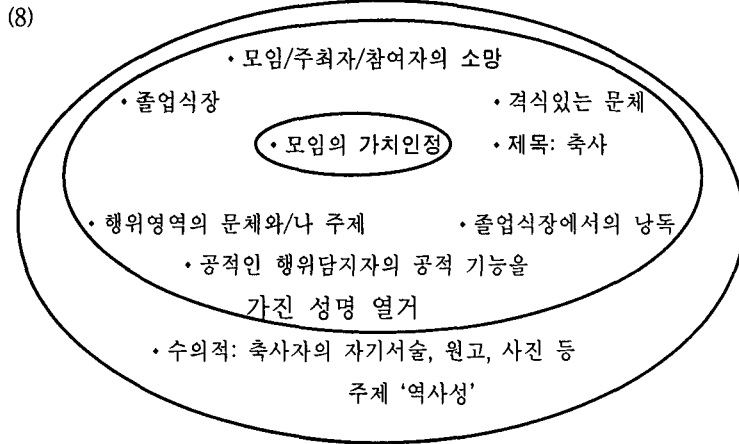
여러분들의 숨결과 추억이 가득 담긴 정든 교정과 인자하신 교수님 그리고 든든한 동문이 있는 모교야말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고향」임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비록 교정은 떠나지만 천마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새 출발에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를 드리며, 진취적인 기상과 용기를 가지고 희망의 내일을 향해 웅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자랑스런 천마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총동창회장 xxx(서명)

하나의 텍스트 종류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기본 기준들(거의) 완전히 충족시키는 원형적인 예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주변적인 예들도 있다. 우리는 원형에 근거하여 다른 텍스트의 상황이나 맥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형 외에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심하게 어긋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의도성을 암시해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사용의미를 찾아내어야 한다. 예시 텍스트 (7)의 원형을 원형적인 제시 방식에 따라 보이면 (8)과 같다.

(8)에 따르면, 축사에서 핵심 행위는 공공생활의 인물에 의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제도(공동체, 협회, 학교 등)의 모임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로써 모임을 개최하는 제도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이다. 소망도 추가된다. 소망은 모임의 흐름과 모임의 참가자 그리고 제도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



공적인 의식(儀式)이 관련되어 있어서 격식을 차린 문체가 중요한 자질이다. 모임과/나 축사자가 소속하는 사회적인 행위 영역의 문체나 주제도 흔하게 사용되는데, 주제는 '역사적인' 차원에서도 설정될 수 있다. 축사는 특정 장소, 여기서는 졸업식장에서 낭독되는데, 텍스트의 시작과 끝이 명시된다. '축사'는 제목이다. 축사자의 성명 제시(또는 서명)는 공적 기능이 있으며, 텍스트의 종결을 명시한다. 수의적 자질로는 축사 당사자의 사진, 원고, 자기서술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축사 당사자의 독특한 능력 증명이 제시되는데, 축사에서 문체적, 주제적 수행 과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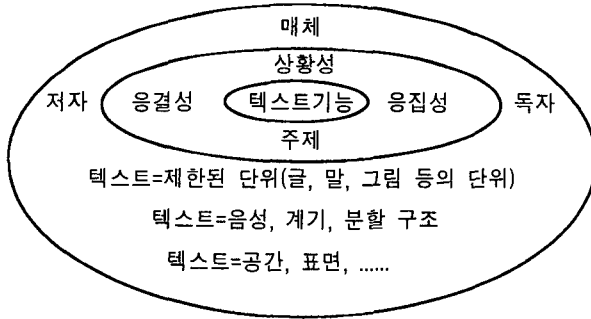
축사 장소는 대학교의 졸업에 즈음하여 개최된 졸업식장이다. 그 밖의 축사자로는 총장, 이사장 등 학교에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제목과 마지막 인사말(원고에는 서명이 포함됨)은 적법한 형식에 상응하는 것이다. 격식을 갖춘 문체는 '축하, 치하, 격려 ...' 같은 변이형들을 통하여 주제에 맞게 실현되고 있다. 어휘적, 통사적 강화표현들이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축사와 같은 의식 행사에서 요구되는 텍스트 생산자의 정표성(expressivity)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

주제에 맞게 축사가 계획되고 있어서, 한편으로 관계 기관의 구성원, 여기서는 대학 구성원과 관련 인물들(총장, 교직원, 졸업생 및 학부모)이 주제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축사의 핵심 주제인 졸업의 의미와 사회에서 졸업생의 역할과 의미가 여러 번 축사자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텍스트 종류 「축사」에 관해서 이런 핵심 자질 외에도 또 다른 텍스트 자질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자질들은 주변적으로만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다.¹⁸⁾ 이들은 주로 저자와 독자 및 자료의 매체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다음의 (9)는 (8)에 근거하여 텍스트의 핵심 자질을 재정리한 것인데, 여기서도 텍스트 기능이 핵심 자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¹⁹⁾

(9) 텍스트의 핵심 자질들



7. 마무리

본고의 목표는 독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근래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원형 이론에 기대어 텍스트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찾아내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지의미론에서 말하는 원형 범주화 개념을 끌어들인다. 이것은 우리는 이상적 인지모형에 의해 지식을 조직화한다는 뜻인데, 그러한 조직의 산물 중 하나가 원형효과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텍스트 이론에서 인지적 전환을 마련한 보그랑드와

18) 텍스트의 전형적인 주변 현상들로는 한 단어 텍스트, 한 문장 텍스트, 응집성이 없는 상황 속의 텍스트를 들 수 있다. 상황은 텍스트 기능을 결정한다. 그밖에 주제가 없는 텍스트, 부차적인 주제가 있는 텍스트 등도 주변 현상들에 속한다.

19) 잔디히(2000)도 참조.

드레슬러(1981)의 텍스트다움의 기준들을 텍스트의 원형 자질과 관련해서 원형 이론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파터(1994)의 지시 이론, 클라인과 폰 슈투터하임(1992)의 지시이동 개념, 뢰처(1987)의 주제 개념을 원형 효과에 유추하여 살펴면서 텍스트 개념 정립에 필요한 원형 자질들을 찾아 나섰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원형 이론이 텍스트 개념 정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텍스트 종류 「축사」의 예시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인지의미론에서 말하는 원형효과에 기대면, 가장 축사다운 「축사」의 원형은 텍스트 기능, 주제, 응집, 응결, 상황 뿐 아니라 주변 현상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모형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텍스트(종류)는 문화와 매체의 다양성에 따라 원형효과를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변형되어 실현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영수(2001). 원형이론에서의 전형성과 원형성의 역할. 독일어문학 16, 143-160
 김성도(2000). 말·글·그림 - 융합기호학 서설. 기호학 연구 7, 41-130.
 박여성(2001). 미디어폴리시대의 텍스트과학. 고영근 밖에(2001). 텍스트과학의 제과제. 역락, 17-43.
 이성만(1993ㄱ). 저자시점의 언어적 실현에 대하여. 인문논총(배재대) 7, 141-170.
 이성만(1993ㄴ). 텍스트는 체계인가? 독일문학 50, 303-327.
 이성만(1995). 텍스트구조의 두 가지 차원. 독일문학 55, 411-433.
 이성만(2000). 텍스트종류 '부음'의 한·독 비교연구시론. 독어학 2, 307-342.
 이성만(2001). 텍스트의 주제와 기능을 찾아서. 언어과학연구 19, 87-114.
 이성만(2002ㄱ). 텍스트 개념의 토대를 찾아서: 텍스트의 구성과 경계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17 (예정).
 이성만(2002ㄴ). 하이퍼텍스트와 텍스트 분석. 독일문학 (예정)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임지룡 외역(1998). 인지언어학 개론. 태학사.
 조명원 외역(1997).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Antos, G./H. Tietz(Hrsg. 1997). *Die Zukunft der Textlinguistik. Tradition, Transformationen, Trends*. Tübingen: Niemeyer.
 de Beaugrande, R.A./W.U. Dressler(1981).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 Tübingen: Niemeyer.
- Brinker, K.(1992). *Linguistische Textanalyse*. Berlin: Erich Schmidt.
- Dressler, W.U.(1972).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Tübingen.
- Ehlich, K.(1984). Zum Textbegriff. in: *Text - Textsorten - Semantik* Hrsg. von A. Rothkegel/B. Sandig. Hamburg: Buske, 9-25.
- Ehlich, K.(1986/96). Funktional-pragmatische Kommunikationsanaly *Sprachwissenschaft*. Hrsg. von L. Hoffmann. Berlin: de Gruyter
- Halliday, M.A.K./R.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Hartmann, P.(1971). Texte als linguistisches Objekt. in: *Probleme der Textlinguistik..* Hrsg. von W.D. Stempel. München, 9-29.
- Heinemann, W./D. Viehweger(1991). *Textlinguistik*. Tübingen: Niemeyer.
- Klein, W./Ch. von Stutterheim(1992). Textstruktur und referentielle Bewegung. in: *LiLi* 86, 67-92.
- von Lage-Müller, K.(1995). *Text und Tod* Tübingen.
- Lötscher, A.(1987). *Text und Thema. Studien zur thematischen Konstituierung von Texten*. Tübingen.
- Nussbaumer, M.(1991). *Was Texte sind und wie sie sein sollen*. Tübingen: Niemeyer.
- Sandig, B.(2000). Text als prototypisches Konzept. in: *Von der Prototypentheorie zur empirischen Semantik*. Hrsg. von M. Mangasser-Wahl. Frankfurt: Lang, 93-112.
- Schlieben-Lange, B.(1975). *Linguistische Pragmatik*. Stuttgart.
- Vater, H.(1994).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München: Fink.

Zusammenfassung

Ist Text ein Prototyp?

- Versuch einer Begriffsbestimmung aus prototypentheoretischer Sicht -

Lee, Seong-Man(Paichai Univ.)

Die Arbeit versucht, den Textbegriff aus prototypentheoretischer Sicht neu zu orientieren. Damit wird unter Text immer eine monologisch geschriebene sprachliche

Äußerung aus mehreren Sätzen verstanden.

Die in de Beaugrande/Dressler(1981) als wichtig bezeichnete Textmerkmale wird dann in Bezug auf Vater(1992), Lötscher(1987) und Klein/von Stutterheim (1991) kritisch geklärt. Daraus ergibt sich eine merkmalsorientierte Textbestimmung: Ein Text ist eine abgeschlossene themenorientierte kommunikative Einheit in einem konkreten Kontext; er hat eine bestimmte kommunikative Funktion und erfüllt kohärente Bedingungen.

Meine These ist: Typische Texte sind auf Mustern, nämlich auf Prototypen bezogen. Textmuster sind als Prototypen bezeichnet, die in unterschiedlichem Maß Spielraum für Variationen und Kreativität lassen. Textmuster sind zu beschreiben über das Zusammenspiel von nichtsprachlichem Handlungstyp und sprachlicher Textsorte. Dieses Zusammenspiel von Handlungsaspekten wird in prototypischer Weise mit bestimmten Textmerkmalen verbalisiert. Mit Textmusterbeschreibungen werden jeweils prototypische Exemplare beschrieben: die beste Exemplare, die klar als solche erkennbar sind. Die Formulierung 'Es war einmal...' ist für Märchen zwar prototypische Anfangsform, aber sie wird nur in etwa einem Drittel der Fälle verwendet. Prototypische Textmustermerkmale sind also nicht obligatorisch. Das heißt, dass die Realisierungen je nach individueller bzw. kultureller Situation und damit verfolgtem Zweck variabel sind. Damit habe ich mich am Beispiel der Textsorte <Festrede> beschäftigt.

[검색어] 텍스트, 텍스트다움(텍스트성), 원형(이론)
Text, Textuality, Prototype theory